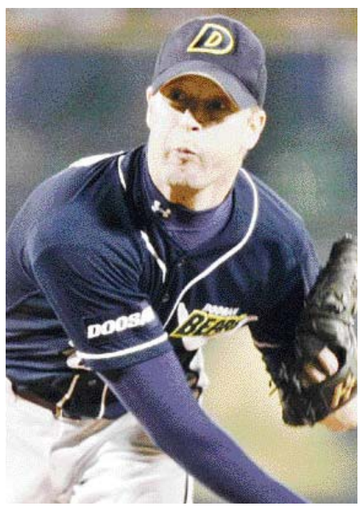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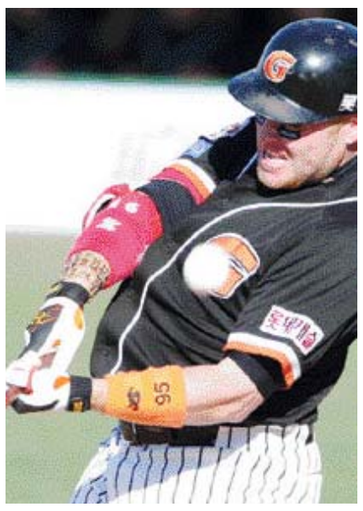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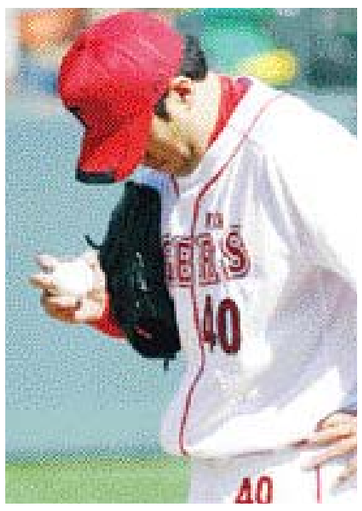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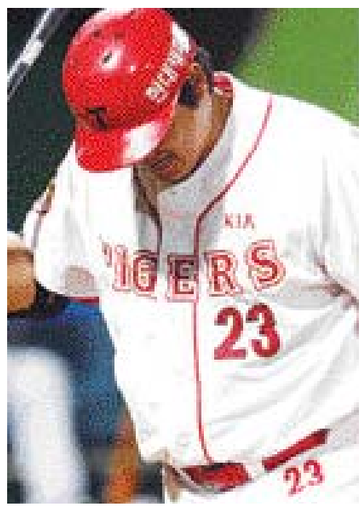
함평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랜들 〈KS 1차전 MVP〉 **'웃고'** 가르시아▲ 〈롯데 돌풍 주역〉

▲서재응 〈5승5패 부진〉 **'울고'** 최희섭▲ 〈부상에 2군행〉

2008 시즌 결산

<3> 용병과 빅리거 출신 성적

한국무대 4년차 랜들(두산)에서부터 초대형 신입 용병 리마(KIA)까지 2008시즌에도 용병들의 한국무대 도전기가 계속됐다.

KIA 타이거즈는 메이저리그 83승에 빛나는 '역대 최고 용병' 리마와 특급 유격수 발데스를 영입하며 눈길을 끌었다. 시범경기에서 1.0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신고한 리마는 특유의 쇼맨십까지 선보이며 '리마타임'을 예고했고, 발데스는 깔끔한 수비와 10개의 도루로 '흑종범'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팀의 시범경기 1위를 이끌었던 이들의 '코리언 드림'은 채 한 달도 가지못했다.

5경기에서 7.43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를 기록하며 4월20일 2군으로 추락했던 리마는 결국 3승6패 평균자책점 4.89의 성적만을 남긴 채 쓸쓸히 한국을 떠났다. 발데스도 0.218의 타율과 6개의 실책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유니폼을 벗었다.

이후 KIA는 4강 총력전을 위해 디아즈와 데이비스를 영입했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안정된 제구력을 자랑하던 디아즈는 부상에 발목 잡혔고, 수준 다른 투구를 선보인 데이비스는 퀵모션이 문제였다. '스몰볼' 적응에 실패한 데이비스는 2승5패 평균자책점 3.98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외에도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됐던 쿠비얀(SK), 오버뮬러·크루즈(이상 삼성), 브라운(LG), 스코비(히어로즈), 매클레리(롯데) 등 8명의 용병이 한국 야구의 높은 벽에 막혀 시즌 중반 퇴출됐다. 4년 만의 복귀로 기대를 모은 레스(두산)도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짐을 쌌다.

한국무대 성공 신화를 쓴 용병도 있다. 타점왕과 홈런 2위를 거머쥔 '미스터 쓰리런' 가르시아(롯데)는 폭발적인 장타력과 깔끔한 매너로 롯데 돌풍의 중심에 섰다. '우익수 앞 땅볼'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한 강한 어깨도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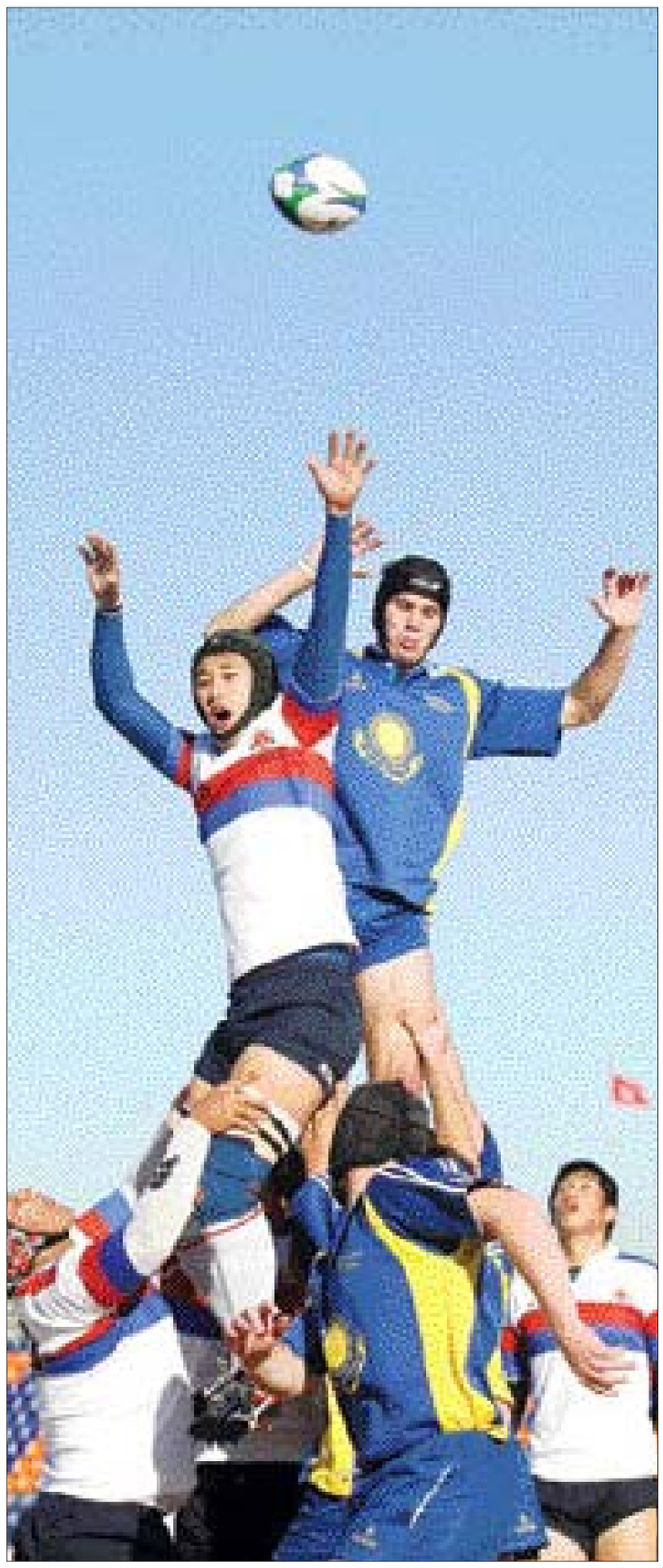
무너진 두산 마운드를 지탱한 랜들(두산)은 부친상을 당하고도 SK와의 한국시리즈에서 '눈물의 역투'를 선보여 1차전 MVP의 영예를 안았다. 불혹의 나이에 한국무대에 도전한 다카쓰(히어로즈)도 18게임에 나서 0.086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8세이브를 기록해 내년 활약을 기약했다.

'슈퍼팬'클락(한화)은 팀을 웃기고 또 울렸다. 6월까지 17홈런 54타점으로 거포군단 한화를 이끌었던 클락은 7월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3할대의 타율이 0.246까지 떨어졌다. 결국 상위권에 머물던 한화는 클락의 하락세와 맞물려 4강 탈락의 충격을 맛보아야 했다.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 '빅리거'들의 명암도 엇갈렸다. 새내기 빅리거 서재응과 김선우는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서재응은 부상과 씨름하느라 16게임에 나와 5승5패 4.0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김선우도 개막 한 달도 안돼 2군에 다녀오기도 했다. 김선우는 하반기 8경기에서 5차례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부진을 만회했지만 평균자책점 4.25, 6승7패의 성적을 남겼다.

2년차 빅리거들은 마운드 힘을 과시했다. 지난해 5승5패로 한국생활을 시작했던 송승준은 올 시즌 12승을 챙기며 팀의 가을잔치를 이끌었다. 봉중근은 팀이 최하위를 면치못했지만 2.66의 평균자책점으로 11승을 챙기며 분투했다. 반면 부상으로 2군을 오르내리던 최희섭은 0.229의 타율로 6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너무 높다" 4일 전북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럭비대회' 한국-카자흐스탄 경기에서 한국 박무현(왼쪽)과 상대 선수가 라인아웃 때 드로인 공을 받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감독 "WBC 사령탑, NO!"

'올림픽 금' 명예유지 부담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이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사령탑 자리를 앞에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성근 감독은 4일 "대표팀 감독을 맡기엔 체력이 따르지 않아 현재로선 힘들 것 같다. 다른 적임자가 맡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5일 기술위원회를 앞두고 WBC 감독 자리를 김 감독에게 맡길 의향을 사실상 굳힌 데 대한 반응이다.

김 감독이 이처럼 WBC 감독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올림픽 '금메달의 그늘'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8월에 열린 베이징올림픽에서 쿠바, 미국, 일본 등 강팀을 모두 물리치고 9전 전승의 퍼펙트 행진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또 김인식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3년전인 제1회 WBC에서 4강 신화를 이뤘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시간적인 이유도 있다. WBC 대회가 열리는 3월 초는 구단별로 스프링캠프 등 시즌 준비에 한창 바쁜 시기라는 점도 김 감독의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감독이 끝까지 외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잠재적인 후보로 꼽힌 김경문 감독은 2년 연속 2위에 그친 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내세워 대표팀 사령탑을 고사했지만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2연패를 달성한 김성근 감독이 팀 사정을 고사 이유로 내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김경문 감독 14억원 재계약

김경문 감독이 앞으로 3년 더 두산 베어스를 이끌게 됐다.

두산 구단은 4일 김 감독과 3년간 계약금 3억5천만원, 연봉 3억5천만원 등 총액 14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김 감독의 합리적인 선수단 운영 등을 높이 평가해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2004~2005년 2년간 3억9천만원에 감독을 맡은 데 이어 2006년부터 3년간 8억원을 받고 재계약했고, 이번에 두번째 재계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을 맞이하라

김연아 시리즈 5연승 시동

'컵 오브 차이나' 내일 개막

'피겨퀸이 돌아왔다. 금메달을 준비하라'

더욱 깊어진 연기력과 점프기술로 한 단계 진화한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과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 달성의 꿈을 품고 베이징에서 본격적인 메달 사냥을 준비한다.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는 시즌 두 번째 무대인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6~9일) 석권을 위해 3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연아는 4일 오후 근력운동과 조깅으로 몸을 풀고 저녁 늦게 경기가 펼쳐질 베이징 수도실내체육관 실내링크에서 첫 빙질 적응훈련에 나선다.

김연아는 4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8시 45분부터 트프로그램을 치르고 8일 오후 5시부터 스케이팅 연기에 나선다

김연아는 6가지 점프 기술 가운데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제외한 5가지 점프를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 ISU가 피겨스케이팅 기술세미나에서 교본으로 채택할 정도다.

ISU는 채점기준 강화를 위해 지난 시즌부터 잘못된 에지(스케이트 날)를 사용한 점프에 대해 채점표에 'e'를 표시하면서 감점을 줬다.

하지만 김연아에게 잘못된 에지는 딴 세상 이야기다.

오히려 김연아의 점프는 기본 점수와 더불어 높은 가산점을 받을 정도로 정교해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여자 선수 최초로 3회전 연속 점프에서 가산점 2점을 받기도 했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71.95점)과 프리스케이팅(133.70점)에서 각각 역대 최고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점수를 합친 총점에서는 아사다(199.52점)에게 밀리는 197.20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연아는 여자 싱글 최초의 200점대 돌파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200점 돌파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의도적인 무관심에 가깝다.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 관계자는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연기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200점 돌파에 대해 스스로 부담을 갖지 않으려 한다"고 귀띔했다. 대신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스핀 점수 높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경주·앤서니 김 '별들의 파티' 간다

내일 HSBC챔피언스 출전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와 '앙팡테리블'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별들의 파티'에 참가한다.

최경주와 앤서니는 6일부터 나흘간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골프장(파72·7천199야드)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스에 나란히 출전한다.

HSBC챔피언스는 11월에 열리지만 유럽프로골프투어 2009년 시즌 개막전이다.

때마침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쉬는 기간이라 미국과 유럽 최정상급 선수들을 불러모아 메이저대회나 다름없는 엔트리를 자랑하는 대회이다.

올해도 작년 우승자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을 비롯해 메이저대회 2관왕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세계랭킹 3위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세계 6위 로베르트 카를손(스웨덴), 7위 카밀로 비예가스(콜롬비아)에 세계 8위 앤서니까지 가세해 세계 '톱 10' 가운데 6명이 출전한다.

마스터스 챔피언 트레버 이멜만(남아공)과 아담 스콧, 제프 오길비(이상 호주), 헨릭 스텐손(스웨덴), 폴 케이시(잉글랜드), 토마스 비욘(덴마크),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등 한때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포진했던 강호들이 즐비하다.

이 대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진객'으로 예우받는 세계랭킹 15위 최경주는 늘 우승후보로 거론된다.

이 대회가 시작된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 코스에 밝은데다 2005년 12위에 이어 2006년 9위에 오르는 등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50위에 그쳐 체면을 구겼지만 이어 벌어진 UBS홍콩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동아시아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최경주는 "중국에 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국 땅만 봐도 힘이 솟는다"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중국대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회에 처음 초청받은 앤서니는 PGA 투어 뿐 아니라 유럽투어도 평정하겠다는 야심 아래 출사표를 냈다.

한편 이 대회가 아시아투어를 겸한 덕에 올해 아시안투어대회 우승자인 배상문(22·캘러웨이),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 노승열(17·경기고), 모중경(37·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도 출전 기회를 잡았다.

J골프가 6일~9일 매일 오후 1시부터 실황중계한다. /연합뉴스